

|   |   |   |   |
|---|---|---|---|
| 노 | 동 | 동 | 향 |
|---|---|---|---|

## 경제일반

최효미\*

### ◆ 실물경제지표 상승세 지속

- 2002년 11월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상승세가 지속됨(표 1 참조).
  - 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, 석유정제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, 영상음향통신 등은 10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, 전년동월대비 7.1% 증가
  - 서비스업의 생산(부가가치기준)은 전년동월대비 5.6%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세 둔화
  - 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7.0% 증가하였으며, 내수 출하는 7.4% 감소하였으나, 수출 출하는 6.3% 증가
  - 재고는 음향통신기기, 제1차금속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, 기계장비, 자동차 등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.1% 감소
  -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.5로 전년동월보다 2.6%포인트 상승하였으며, 전월 대비로는 0.5%포인트 감소
- 선행종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간재출하지수, 수출신용장내도액 등 5개 구성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보다 0.3% 증가(표 2 참조)
  -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월에 100.5(1995=100기준)로 전월보다 0.2%포인트 증가
  - 한편 동행종합지수는 시멘트 소비량, 생산자출하 지수 등 8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.5% 상승

\*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(chm@kli.re.kr).

<표 1> 산업활동 동향

(단위: %, 1995=100)

|           | 2001 |      |      | 2002  |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| 9월   | 10월  | 11월  | 6월    | 7월    | 8월    | 9월   | 10월  | 11월  |
| 생 산       | 5.1  | -1.4 | 4.2  | 5.3   | 8.7   | 8.5   | 0.0  | 11.9 | 7.1  |
| 제 조 업     | 4.7  | -1.6 | 3.9  | 5.2   | 8.7   | 8.8   | -0.2 | 11.7 | 6.9  |
| 서 비 스 업   | 6.5  | 8.7  | 7.8  | 7.4   | 9.4   | 8.0   | 6.2  | 8.9  | 5.6  |
| 출 하       | -4.6 | -0.9 | 5.9  | 2.1   | 7.3   | 7.5   | 1.1  | 12.3 | 7.0  |
| 재 고       | 10.9 | 4.3  | 1.5  | -10.9 | -13.6 | -11.9 | -2.7 | -1.5 | -1.1 |
| 평 균 가 동 률 | 73.3 | 72.4 | 74.5 | 73.3  | 75.2  | 77.1  | 75.7 | 77.0 | 76.5 |

주: 평균가동률을 제외한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.

서비스업 생산은 『2002년 11월 중 서비스업 활동동향』을 참조한 것임.

자료: 통계청, 『2002년 11월 중 산업활동동향』, 2002. 12.

<표 2> 경기종합지수 동향

(단위: 전월대비 %, 1995=100)

|            | 2001 |      |      | 2002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| 9월   | 10월  | 11월  | 5월    | 6월    | 7월   | 8월   | 9월   | 10월   | 11월   |
| 선행종합지수     | 1.5  | 0.6  | 1.1  | 0.8   | -1.4  | -0.3 | 0.0  | 1.5  | 1.6   | 0.3   |
| 동행종합지수     | 0.7  | 0.6  | 0.5  | 0.9   | -0.3  | -0.3 | 0.1  | 1.1  | 0.7   | 0.5   |
| 후행종합지수     | 0.4  | -0.2 | 0.0  | -0.2  | 0.2   | 0.3  | 0.4  | 0.4  | -0.4  | 0.0   |
|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| 98.4 | 98.7 | 98.9 | 100.6 | 100.0 | 99.4 | 99.1 | 99.9 | 100.3 | 100.5 |

자료: 통계청, 『2002년 11월 중 산업활동동향』, 2002. 12.

◆ 200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2.7% 상승세에 그쳐

○ 12월 중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지속
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부문별로 보면, 공공서비스 요금은 다소 하락, 농축수산물, 공업제품, 집세, 개인서비스 부문은 오른 것으로 나타남
- 12월중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.5%, 전년동월대비 3.7% 각각 상승하였으며, 농축수산물은 출하부진으로 채소류가 오르고 집세, 공공·개인서비스 부문도 상승 (표 3 참조)
-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.7%, 전월대비 0.6% 각각 상승.

- 2002년 12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4.6% 상승하였고, 전월대비로는 0.1% 상승하여 8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됨.
  - － 석유제품, 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내림세에도 불구하고, 추운날씨로 인한 농림수산품의 출하물량 감소와 외항화물운임 및 시내버스요금 인상 등의 서비스물가 상승에 기인

〈표 3〉 물가지수 동향

(단위: 전년동월대비 %)

|           | 2001 |     |      | 2002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|
|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|
|           | 10월  | 11월 | 12월  | 5월   | 6월  | 7월  | 8월  | 9월  | 10월 | 11월 | 12월 |  |
| 소비자물가 상승률 | 3.4  | 3.4 | 3.2  | 3.0  | 2.6 | 2.1 | 2.4 | 3.1 | 2.8 | 3.5 | 3.7 |  |
| 생활물가 상승률  | 3.6  | 3.7 | 3.0  | 3.1  | 2.3 | 1.4 | 1.8 | 3.0 | 2.2 | 3.2 | 3.7 |  |
| 생산자물가 상승률 | 0.6  | 0.1 | -0.7 | 1.5  | 1.2 | 0.9 | 1.6 | 2.2 | 3.1 | 4.0 | 4.6 |  |

자료: 한국은행, 『2002년 12월 중 및 연중 생산자물가 동향』, 2003. 1.

통계청, 『2002년 연간 및 12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』, 2002. 12.

#### ◆ 2002년 수출입 증가

- 2002년 수출은 전년대비 8.2%, 수입은 7.7% 증가하여 5년 연속 흑자를 기록
  - － 2002년 연중 수출(통관기준)은 1,628.2억 달러로 전년대비 8.2% 증가
  - － 2002년 연중 수입(통관기준)은 1,520.2억 달러로 전년대비 7.7% 증가
- 대선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 수출증가율은 3개월 연속 20%대를 유지(표 4 참조)
  - － 2002년 12월 중 수출(통관기준)은 152.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.4% 증가
  - － 2002년 12월 중 수입(통관기준)은 144.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.0% 증가
- 한편 경상수지는 2002년 11월 10.6억 달러 흑자로 전월보다 3.2억달러 축소

<표 4> 대외거래 동향

(단위: 백만달러, %, 원/달러)

|                     | 2001    |         |         | 2002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10월     | 11월     | 12월     | 6월      | 7월      | 8월      | 9월      | 10월     | 11월     | 12월     |
| 경 상 수 지             | 300.4   | 738.1   | 15.3    | 793.1   | -12.7   | 150.9   | 459.7   | 1380.3  | 1,064.2 | -       |
| 수 출 액 <sup>1)</sup> | 12,086  | 12,349  | 11,914  | 12,898  | 13,541  | 13,961  | 13,910  | 15,083  | 15,226  | 15,173  |
|                     | (-20.7) | (-17.6) | (-20.4) | (-0.3)  | (18.9)  | (18.7)  | (11.8)  | (24.8)  | (23.3)  | (27.4)  |
| 수 입 액 <sup>1)</sup> | 11,507  | 11,533  | 11,302  | 11,924  | 12,962  | 12,860  | 12,985  | 13,812  | 14,027  | 14,469  |
|                     | (-18.4) | (-18.6) | (-14.2) | (1.7)   | (16.7)  | (13.4)  | (10.9)  | (20.0)  | (21.6)  | (28.0)  |
| 평 균 환 율             | 1,296.1 | 1,274.0 | 1,326.1 | 1,201.8 | 1,197.0 | 1,200.5 | 1,225.5 | 1,233.4 | 1,208.0 | 1,200.4 |

주: 1) 통관기준.

2) ( )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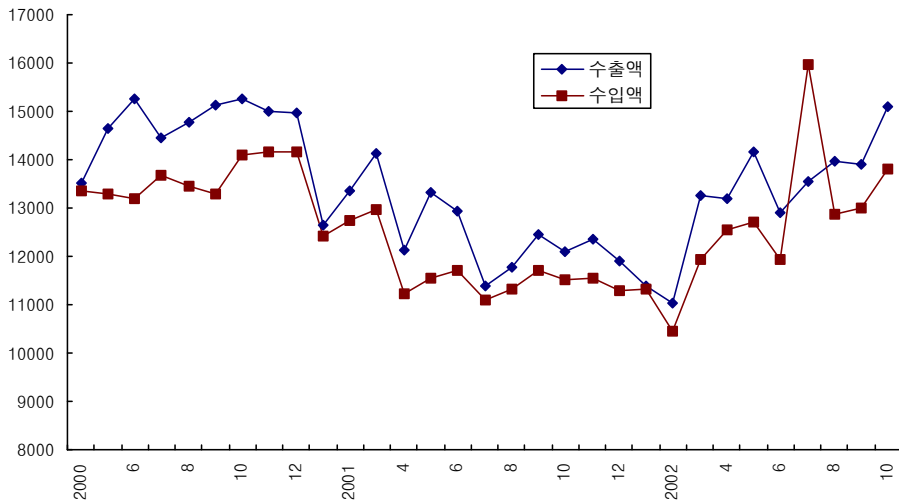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자원부, 『2002년 12월 수출입 실적(잠정)평가』, 2003. 1.

한국은행, 『2002년 11월 중 국제수지 동향(잠정)』, 2002. 12.

\_\_\_\_\_, 경제통계 DB.

[그림 1] 수출액과 수입액 추이

(단위: 백만달러)



자료: 산업자원부, 『2002년 12월 수출입 실적(잠정)평가』, 2003. 1.

노 동 동 향

노동시장

최효미·강승복\*

◆ 실업률 3.0%로 동절기 들어 상승세

- 2002년 12월 중 실업자는 664천명(실업률 3.0%)을 기록하여 전월의 615천명보다 49천명 증가(표 1 참조)
  - 방학을 맞은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증가에 따라 실업률은 지난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
  - 취업자는 농림어업과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에서의 감소로 인해 다소 감소
  -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.6%(349천명) 증가한 21,696천명을 기록하였으며,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

표 1> 최용의 고용동향

(단위: 천명, %)

|         | 2001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02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| 10월         | 11월          | 12월          | 10월         | 11월         | 12월         |
| 경제활동인구  | 22,563(1.0) | 22,524(1.6)  | 22,109(1.7)  | 22,847(1.3) | 22,680(0.7) | 22,360(1.1) |
| 참가율     | 61.7        | 61.5         | 60.3         | 61.9        | 61.4        | 60.5        |
| 취업자     | 21,863(1.3) | 21,810(2.1)  | 21,347(2.3)  | 22,242(1.7) | 22,066(1.2) | 21,696(1.6) |
| 실업자     | 699         | 714          | 762          | 605         | 615         | 664         |
| 실업률     | 3.1         | 3.2          | 3.4          | 2.6         | 2.7         | 3.0         |
| 비경제활동인구 | 14,022(0.7) | 14,092(-0.2) | 14,533(-0.3) | 14,076(0.4) | 14,262(1.2) | 14,609(0.5) |

주: ( )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.

자료: 통계청, 『2002년 12월 고용동향』, 2003. 1.

\* 최효미=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(chm@kli.re.kr), 강승복=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(kangsb@kli.re.kr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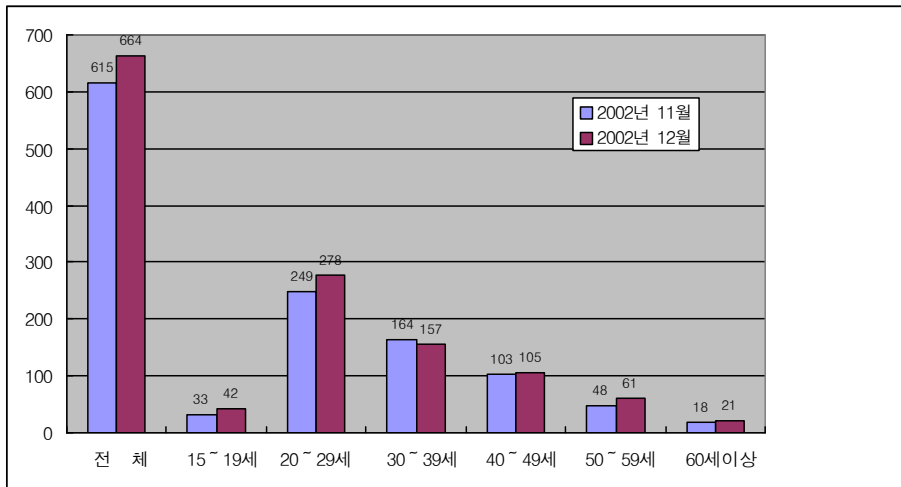
-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.1% 증가한 22,360천명,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.5% 증가한 14,609천명
-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, 실업자는 49천명 증가하고, 취업자는 370천명 감소
  - 2001년 12월에는 실업자가 전월대비 48천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463천명 감소
  - 경제활동참가율은 60.5%로 전년동월 60.3%에 비해 0.2%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0.9%포인트 하락

◆ 전월대비 실업자수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

- 20대 실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38천명 증가 (그림 1 참조)
  - 전월대비 실업률은 20~29세가 가장 큰 폭인 0.7%포인트 증가하였으며, 30대에서만 0.1%포인트 감소
  - 전년동월대비로 보면, 실업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모두 감소했으며, 15~19세에서 가장 크게 감소

[그림 1] 연령계층별 실업자

(단위: 천명)



자료: 통계청, 『2002년 12월 고용동향』, 2003. 1.

◆ 취업자 감소는 농림어업과 사업·개인 공공서비스업이 주도

- 전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는 370천명(-1.7%) 감소 (표 2 참조)
  -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,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(31천명)에서는 증가했으나,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감소
  - 농림어업에서는 335천명(-15.5%) 감소
  - 한편 전년동월대비로는 취업자가 349천명(1.6%) 증가하였으며, 특히 건설업에서 138천명(8.4%) 증가
  - 제조업에서는 78천명(-1.8%), 도소매·음식숙박업에서도 37천명(-0.6%)이 전년 동월대비 감소

표 2> 산업별 취업자 추이

(단위: 천명, %)

|                | 2002. 11 | 2002. 12 | 전월대비<br>증감인원 | 전년동월대비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전 산업           | 22,066   | 21,696   | -370         | 349 (1.6)  |
| 농림어업           | 2,165    | 1,830    | -335         | 9 (0.5)    |
| 광업             | 19       | 17       | -2           | -4 (-19.4) |
| 제조업            | 4,164    | 4,140    | -24          | -78 (-1.8) |
| 건설업            | 1,805    | 1,786    | -19          | 138 ( 8.4) |
|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   | 5,869    | 5,900    | 31           | -37 (-0.6) |
| 사업·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| 5,902    | 5,867    | -35          | 294 ( 5.3) |
| 전기·운수·창고 및 금융업 | 2,142    | 2,155    | 13           | 26 ( 1.2)  |

자료: 통계청, 『2002년 12월 고용동향』, 2003. 12.

- 노동력 이동을 산업별로 살펴보면,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, 서비스부문에서 신규취업이 증가(표 3 참조)
  - 12월 중 신규취업자는 433천명으로 이 중 약 24.7%인 107천명은 실업에서 취업한 반면, 약 75.3%인 326천명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
  - 신규취업은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(39.7%, 172천명), 사업·개인 및 공공서비스업(23.1%, 100천명)에 치중
  - 제조업은 전체 신규취업자 중 16.3%를 차지
  - 특히 농림어업의 신규취업자 19천명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 이동하였으

며,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(79.1%, 136천명) 및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74%, 748천명)도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 유입

표 3> 신규취업자의 산업별 분포(11월 → 12월)

(단위: 천명, %)

|             | 전 체        | 농림어업     | 제조업      | 건설업       | 도소매 및<br>음식·<br>숙박업 | 사업·개인<br>공공서비스업 | 전기·가스<br>수도·운수<br>창고·금융업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 체         | 433(100.0) | 19( 4.4) | 71(16.3) | 44( 10.2) | 172(39.7)           | 100(23.1)       | 27( 6.2)                 |
| 실 업 자→취업자   | 107(100.0) | 0( 0.0)  | 22(20.6) | 11(10.3)  | 36(33.6)            | 26(24.3)        | 12(11.2)                 |
| 비경제활동인구→취업자 | 326(100.0) | 19( 5.8) | 49(15.1) | 33(10.1)  | 136(41.7)           | 74(22.7)        | 15( 4.6)                 |

자료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, 2002년 11~12월 원자료.

### ◆ 12개월 이상 실업자 전년동월대비 3천명 증가

- 2002년 12월의 구직기간별 실업자를 보면, 6개월 이상 실업자는 전월보다 21천명 증가한 118천명으로 나타남(표 4 참조).
  - 신규실업자는 전월의 34천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45천명
  - 3개월 미만 실업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324천명(48.8%)으로 나타남.

표 4> 구직기간별 실업자

(단위: 천명, %)

|         | 2001. 12  | 2002. 11  | 2002. 12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규실업자   | 63        | 34        | 45        |
| 전직실업자   | 699       | 581       | 619       |
| 3개월 미만  | 469(61.5) | 345(56.1) | 324(48.8) |
| 3~5개월   | 196(25.7) | 173(28.1) | 222(33.4) |
| 6~11개월  | 84(11.0)  | 82(13.3)  | 102(15.4) |
| 12개월 이상 | 13( 1.7)  | 15( 2.4)  | 16( 2.4)  |

자료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, 원자료.



◆ 2002년 12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보다 감소

- 12월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1.0%정도 감소 (표5참조)
  -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, 상용직과 임시직의 근로시간은 각각 1.4% 감소하였으나, 일용직의 경우는 1.6% 증가.
  -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월대비로도 0.4%정도 감소하였으며, 종사상 지위별로도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
표 5>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용로서간

(단위: 시간/주)

|     | 2001.12 | 2002.11 | 2002.12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전 체 | 49.9    | 49.6    | 49.4    |
| 상용직 | 51.3    | 50.7    | 50.6    |
| 임시직 | 51.6    | 51.0    | 50.9    |
| 일용직 | 42.6    | 43.9    | 43.3    |

자료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, 원자료.

◆ 2002년 실업자률은 3%로 경제위기 이후 최저수준

- 2002년 중 실업자는 676천명(실업률 3.0%)을 기록하여, 전년에 비해 143천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도 0.7%포인트 하락(표 6 참조)
  -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은 61.3%로 전년보다 0.5%포인트 상승하였으나, 경제위기 직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
  - 취업자는 2001년에 비해 522천명 증가한 21,884천명
  - 비경제활동인구는 14,266천명으로 전년대비 37천명 감소
  - 2002년의 월별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[그림 2]를 참조

표 6> 연도별 고용동향

(단위 : 천명, %)

|         | 1997        | 1998         | 1999        | 2000        | 2001        | 2002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경제활동인구  | 21,662(2.0) | 21,456(-1.0) | 21,634(0.8) | 21,950(1.5) | 22,181(1.1) | 22,560(1.7)  |
| 참가율     | 62.2        | 60.7         | 60.5        | 60.7        | 60.8        | 61.3         |
| 취업자     | 21,106(1.4) | 19,994(-5.3) | 20,281(1.4) | 21,061(3.8) | 21,362(1.4) | 21,884(2.4)  |
| 실업자     | 556         | 1,461        | 1,353       | 889         | 819         | 676          |
| 실업률     | 2.6         | 6.8          | 6.3         | 4.1         | 3.7         | 3.0          |
| 비경제활동인구 | 13,180(1.1) | 13,906(5.5)  | 14,131(1.6) | 14,189(0.4) | 14,303(0.8) | 14,266(-0.3) |

주: ( )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.

자료: 통계청, 『2002년 12월 고용동향』, 2003. 1.

- 2002년 중 임금근로자 13,780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441천명(3.3%) 증가(표 7 참조)
  - 상용직 근로자는 6,608천명으로 전년대비 108천명(1.7%) 증가
  -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각각 135천명(2.9%) 197천명(8.8%) 증가하였으며,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전년보다 0.7%포인트 상승한 52.0%
  - 비임금근로자는 8,105천명으로 전년대비 82천명 증가

표 7> 연도별 취업동향

(단위 : 천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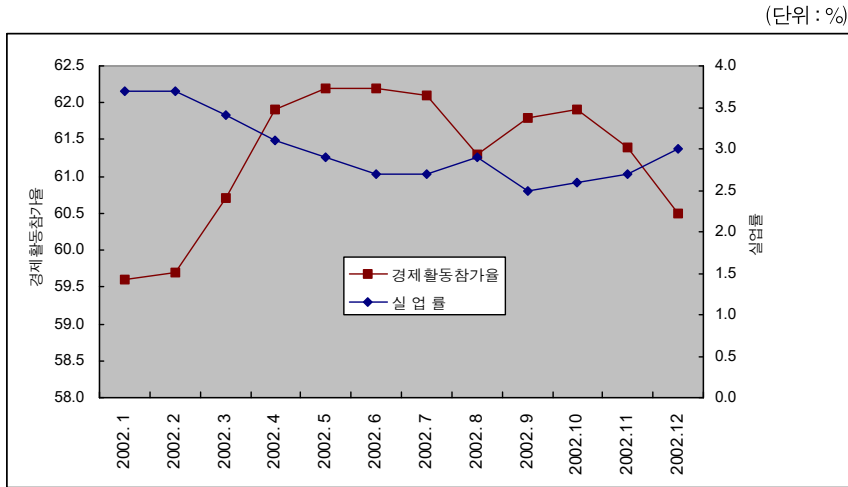
|        | 1997        | 1998        | 1999        | 2000       | 2001       | 2002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취업자    | 21,106      | 19,994      | 20,281      | 21,061     | 21,362     | 21,884     |
| 임금근로자  | 13,226      | 12,191      | 12,522      | 13,142     | 13,339     | 13,780     |
| 상용직    | 7,151(-3.4) | 6,457(-9.7) | 6,050(-6.3) | 6,252(3.3) | 6,500(4.0) | 6,608(1.7) |
| (비중)   | 54.1        | 53.0        | 48.3        | 47.6       | 48.7       | 48.0       |
| 임시직    | 4,182       | 3,998       | 4,183       | 4,511      | 4,601      | 4,736      |
| 일용직    | 1,892       | 1,735       | 2,289       | 2,378      | 2,238      | 2,435      |
| 비임금근로자 | 7,880       | 7,804       | 7,759       | 7,919      | 8,023      | 8,105      |

주: ( )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.

자료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』, 원자료.

-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모두 뚜렷한 계절효과를 가짐.

[그림 2] 월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



자료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』, 원자료.

### ◆ 2002년 10월 높은 임금상승세 지속

- 2002년 10월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,884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2.8% 상승
  - 이는 전년동월의 임금총액 상승률 4.3%보다 8.5%포인트나 상승한 것
  -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,971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.4% 상승
  - 10월까지 누계평균 임금총액은 1,90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.5% 상승
  - 2002년 10월 임금변화의 주요 특징은 정액임금의 높은 상승 지속(12.7%), 초과급여의 지속적 하락(-3.3%), 특별급여의 두드러진 상승(22.1%), 제조업의 높은 상승(15.4%)으로 요약
- 실질임금 상승세 지속
  - 2002년 10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1,750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9.8% 상승
  - 이는 전년동월의 실질임금상승률 0.9%보다 8.9%포인트나 높은 것
  - 제조업 부문 실질임금은 1,755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5.5%의 높은 상승률 기록
  - 10월까지 누계평균 실질임금은 1,78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.7% 상승

[그림 3] 임금상승률 추이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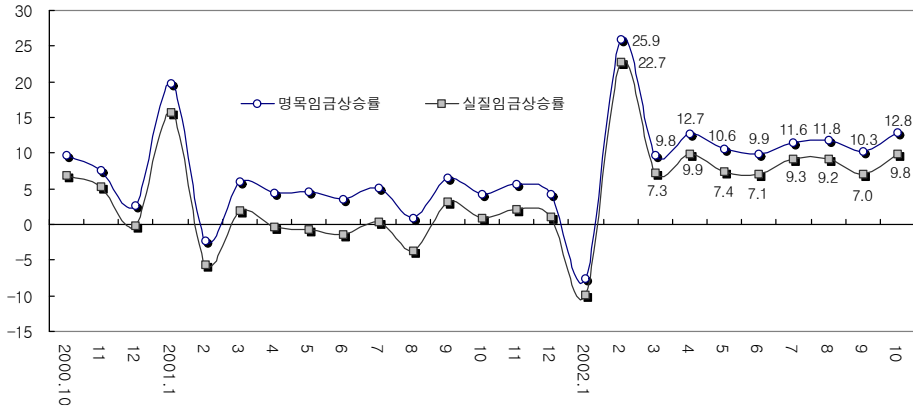


표 8>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

(단위: 천원, %)

|         | 2000. 10     |              | 2001. 10     |              | 2002. 10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| 5인 이상        | 10인 이상       | 5인 이상        | 10인 이상       | 5인 이상        | 10인 이상       |
| 임 금 총 액 | 1,601 ( 9.7) | 1,659 ( 9.6) | 1,670 ( 4.3) | 1,738 ( 4.8) | 1,884 (12.8) | 1,971 (13.4) |
| 정 액 급 여 | 1,199 ( 7.7) | 1,213 ( 7.6) | 1,267 ( 5.7) | 1,285 ( 5.9) | 1,428 (12.7) | 1,457 (13.4) |
| 초 과 급 여 | 145 (13.0)   | 162 (13.3)   | 139 (-4.1)   | 159 (-2.2)   | 134 (-3.3)   | 154 (-3.1)   |
| 특 별 급 여 | 257 (17.7)   | 284 (16.8)   | 264 ( 2.4)   | 295 ( 4.0)   | 322 (22.1)   | 361 (22.3)   |
| 실 질 임 금 | 1,579 ( 6.8) | 1,636 ( 6.8) | 1,594 ( 0.9) | 1,659 ( 1.4) | 1,750 ( 9.8) | 1,830 (10.4) |
| 소비자 물가  | 101.4 (2.6)  |              | 104.8 (3.4)  |              | 107.7 (2.8)  |              |

주: ( )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
자료: 노동부, 『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』, 각호.

○ 고용변화분을 제거한 고정임금상승률은 13.3%

- 라스파이어 가격지수를 사용하여 고용변화분을 제거한 고정임금지수(2000년 =100)는 113.8로 고용변화분이 포함된 평균임금지수 113.0보다 0.8포인트 높게 나타남.
- 이에 따라 2002년 10월 고정임금상승률은 13.3%로 나타나 평균임금상승률 12.8%보다 0.5%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
- 이는 최근의 고용증가가 임금이 높은 산업보다 낮은 산업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

표 9> 고정임금지수와 평균임금지수의 비교

(단위 : 2000=100, %)

|          | 고정임금지수   |      | 평균임금지수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    | 2000=100 | 상승률  | 2000=100 | 상승률  |
| 2000. 10 | 96.0     | -    | 96.0     | -    |
| 2001. 10 | 100.5    | 4.6  | 100.2    | 4.3  |
| 2002. 10 | 113.8    | 13.3 | 113.0    | 12.8 |

주 : 5인 이상 사업체 기준, 당월통계 자료를 사용.

자료 : 노동부, 『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』, 각호를 사용하여 계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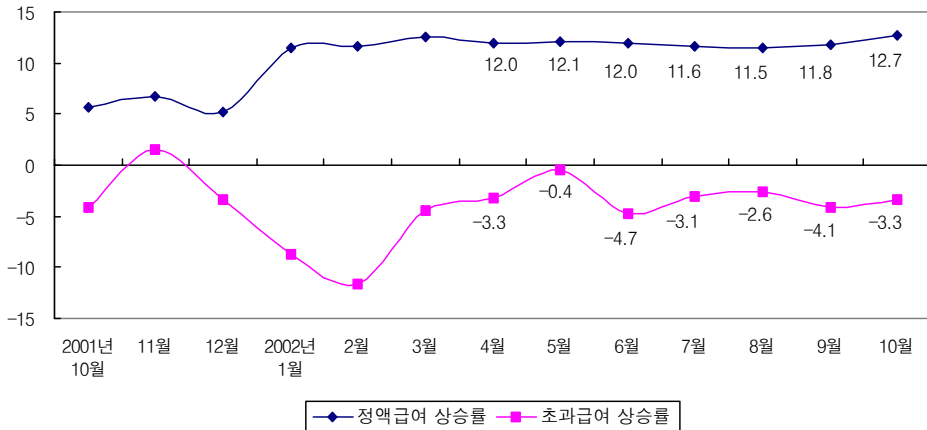
◆ 정액급여가 높은 임금상승률을 주도

○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각각 상승세와 하락세 지속, 특별급여는 대폭 상승

- 2002년 10월 5인 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는 1,428천원으로 전년동월(1,267천원)에 비해 12.7% 상승하여 임금총액 상승률(12.8%)과 비슷한 상승률 기록
- 초과급여 상승률은 2002년 10월 초과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6.0% 하락함에 따라 하락세(-3.3%)를 지속하였고 특별급여는 22.1%의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
- 특별급여의 높은 상승은 건설업(50.5%), 숙박 및 음식점업(75.5%),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(51.7%)의 높은 상승에 기인
- 10월까지 누계평균으로는 정액급여 11.9%, 초과급여 -4.6%, 특별급여 10.9%의 상승률 기록

[그림 4]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상승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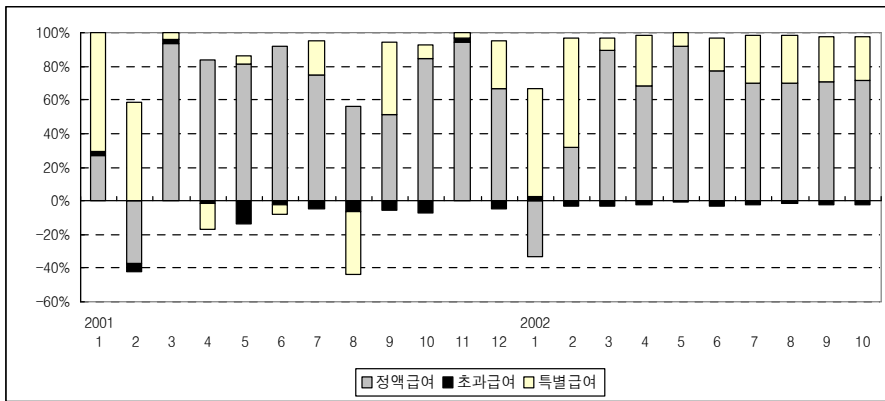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○ 정액급여가 지속적인 임금상승률을 주도

- 2002년 10월 임금총액 상승률 12.8%를 100이라 놓을때 정액급여의 기여율은 74.9%로 전체 임금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<sup>1)</sup>
- 초과급여의 기여율은 -2.2%로 나타나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, 특별급여의 기여율은 27.2%를 기록
- 임금상승률에 대한 임금내역별 기여율은 변화가 심했던 전년과 달리 최근에는 안정된 모습을 보임.

[그림 5] 임금총액 상승률에 대한 임금내역별 기여율 추이



주: 5인 이상 사업체 기준, 당월통계 자료를 사용.  
 자료: 노동부, 『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』, 각호를 사용하여 계산.

◆ 2002년 10월 시간당 임금은 7.7% 상승

- 2002년 10월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8,682원, 7,989원을 기록
  -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7.7%, 9.2% 상승한 수치임.
  -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10월들어 총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5.4% 증가함에 따라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
  - 10월까지 누계평균 시간당 임금은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9,163천원, 8,21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.2%, 12.3% 상승

1) 임금상승률에 대한 내역별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.  

$$\frac{\Delta TWG}{TWG} = \frac{\Delta RWG}{RWG} \frac{RWG}{TWG} + \frac{\Delta OWG}{OWG} \frac{OWG}{TWG} + \frac{\Delta SWG}{SWG} \frac{SWG}{TWG}$$

표 10>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

(단위 : 천원,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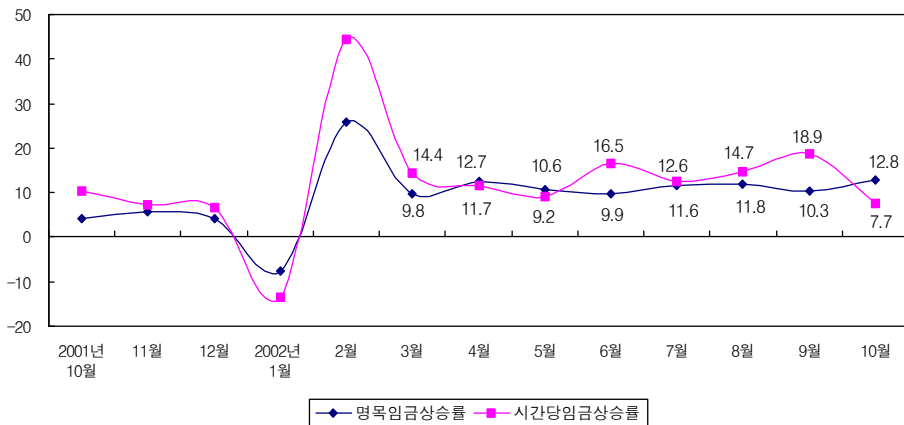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2000. 10     | 2001. 10     | 2002. 10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전산업              | 월평균 임금(천원) | 1,601 ( 9.7) | 1,670 ( 4.3) | 1,884 (12.8) |
|                  | 시간당 임금(원)  | 7,297 (12.5) | 8,062 (10.5) | 8,682 ( 7.7) |
| 제조업              | 월평균 임금(천원) | 1,558 (10.4) | 1,592 ( 2.2) | 1,837 (15.4) |
|                  | 시간당 임금(원)  | 6,662 (14.0) | 7,315 ( 9.8) | 7,989 ( 9.2) |
| 최저임금(시간당, 원)     |            | 1,865 (16.6) | 2,100 (12.6) | 2,275 ( 8.3) |
| 최저임금/시간당 임금비율(%) |            | 25.6         | 26.0         | 26.2         |

- 주 : 1)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.  
 2) ( )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.  
 3) 시간당 임금은 (월평균 임금)÷(정상근로시간+1.5×초과근로시간)으로 계산하였음.  
 4)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전산업 기준임.

자료 : 노동부, 『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』, 각호.  
 최저임금위원회, 『최저임금심의편람』, 각호.

[그림 6] 명목임금 및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

(단위 : %)



◆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높은 임금상승률 기록

- 제조업, 건설업, 사회개인서비스업 등이 전체적인 임금상승을 주도
  - 2002년 10월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15.4%로 금년 2월 이후 전산업 평균상승률보다 높은 추세를 지속
  - 건설업 임금상승률은 2002년 8월 13.6%에서 9월에는 7.0%으로 하락하였으나 10

월에는 13.2%로 다시 상승

표 11>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

(단위: 천원/월, %)

|          | 2000. 10     |              | 2001. 10     |              | 2002. 10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| 5인 이상        | 10인 이상       | 5인 이상        | 10인 이상       | 5인 이상        | 10인 이상       |
| 전 산업     | 1,601 ( 9.7) | 1,659 ( 9.6) | 1,670 ( 4.3) | 1,738 ( 4.8) | 1,884 (12.8) | 1,971 (13.4) |
| 제조업      | 1,558 (10.4) | 1,597 (10.5) | 1,592 ( 2.2) | 1,635 ( 2.4) | 1,837 (15.4) | 1,890 (15.6) |
| 건설업      | 1,585 (11.8) | 1,697 (13.1) | 1,555 (-1.9) | 1,661 (-2.1) | 1,760 (13.2) | 1,939 (16.8) |
| 도소매음식숙박업 | 1,396 (11.2) | 1,467 (11.8) | 1,562 (11.9) | 1,679 (14.5) | 1,753 (12.2) | 1,861 (10.8) |
| 운수창고통신업  | 1,733 (13.9) | 1,762 (13.8) | 1,756 ( 1.3) | 1,786 ( 1.3) | 1,844 ( 5.0) | 1,872 ( 4.8) |
| 금융보험부동산업 | 1,698 ( 3.5) | 1,729 ( 2.6) | 1,833 ( 8.0) | 1,894 ( 9.6) | 2,027 (10.6) | 2,109 (11.4) |
| 사회개인서비스업 | 1,703 (10.4) | 1,827 (10.5) | 1,763 ( 3.6) | 1,899 ( 3.9) | 1,996 (13.2) | 2,181 (14.9) |

주:( )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.

자료: 노동부, 『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』, 각호.

### ◆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두드러져

- 5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이 5~9인 사업체의 1.9배
  -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인 이상 규모가 전년동월에 비해 26.6%로 가장 높고, 10~29인 규모는 5.5%로 가장 낮게 나타남.
  - 5~99인의 소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규모 임금상승률(12.8%)보다 낮은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는 높게 나타나 규모간 양극화 현상을 보임.
- 전반적으로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
  - 5~9인 규모의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10~29인과 30~99인 규모에서만 소폭 축소
  - 전년동월과 비교한 5~9인 규모와의 임금격차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6.3포인트의 가장 큰 증가를 보임.

표 12>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



(단위 : 천원, %)

|          | 2000. 10     |              | 2001. 10     |              | 2002. 10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5~9인<br>=100 |              | 5~9인<br>=100 |              | 5~9인<br>=100 |
| 전 규 모    | 1,601 ( 9.7) | 131.0        | 1,670 ( 4.3) | 129.4        | 1,884 (12.8) | 133.5        |
| 5 ~ 9인   | 1,222 ( 8.6) | 100.0        | 1,290 ( 5.6) | 100.0        | 1,411 ( 9.4) | 100.0        |
| 10 ~29인  | 1,411 ( 6.9) | 115.4        | 1,530 ( 8.5) | 118.6        | 1,615 ( 5.5) | 114.4        |
| 30 ~99인  | 1,467 (12.0) | 120.1        | 1,600 ( 9.1) | 124.0        | 1,739 ( 8.7) | 123.2        |
| 100~299인 | 1,708 (13.3) | 139.8        | 1,769 ( 3.5) | 137.1        | 2,034 (15.0) | 144.2        |
| 300~499인 | 1,835 ( 8.1) | 150.1        | 1,980 ( 7.9) | 153.4        | 2,355 (19.0) | 166.9        |
| 500인 이상  | 2,143 (11.2) | 175.3        | 2,146 ( 0.2) | 166.3        | 2,718 (26.6) | 192.6        |

주: ( )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.

자료: 노동부, 『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』, 각호.

### ◆ 성별 임금격차 소폭 확대

○ 남성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

- 2002년 10월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3.5%를 기록하여 여성의 10.2%에 비해 높게 나타남.
-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62.8로 2000년 및 2001년 동월과 비교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
- 2002년 들어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동월에 비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10월들어 반대의 현상을 나타냄.

표 13> 성별 임금상승률

(단위 : 천원, %)

|     | 2000. 10      |      | 2001. 10      |     | 2002. 10      |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| 임금총액          | 상승률  | 임금총액          | 상승률 | 임금총액          | 상승률  |
| 전 체 | 1,601         | 9.7  | 1,670         | 4.3 | 1,884         | 12.8 |
| 남 성 | 1,806 (100.0) | 9.9  | 1,876 (100.0) | 3.9 | 2,129 (100.0) | 13.5 |
| 여 성 | 1,143 ( 63.3) | 11.2 | 1,212 ( 64.6) | 6.0 | 1,337 ( 62.8) | 10.2 |

주: 1)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.

2)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임.

3) ( )안은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한 지수임.

자료: 노동부, 『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』, 각호.

◆ 2002년 10월 순입직자수 전월보다 소폭 감소

- 전월 및 전년동월에 비해 입직자수, 이직자수 모두 증가
  - 2002년 10월 중 5인 이상 사업체의 입직자수(신규채용자수+전입자수)는 151천명, 이직자수(퇴직해고자수+전출자수)는 153천명으로 나타나 2천명의 이직자수 초과를 나타냄.
  - 전월인 2002년 9월과 비교하여 입직자수는 8천명 증가하였고, 이직자수는 14천명 증가하여 순입직자수(당월 입직자수-이직자수) 증가율은 -0.02%를 기록

표 14> 월별 입·이직자수

(단위: 천명, %)

|          | 입직자수 | 입직률 | 이직자수 | 이직률 | 순입직자수 | 증가율   |
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2001. 10 | 130  | 2.2 | 149  | 2.6 | -19   | -0.3  |
| 11       | 131  | 2.2 | 142  | 2.4 | -11   | -0.2  |
| 12       | 110  | 1.9 | 127  | 2.2 | -18   | -0.3  |
| 2002. 1  | 126  | 2.1 | 126  | 2.1 | 0     | 0     |
| 2        | 142  | 2.4 | 152  | 2.5 | -10   | -0.2  |
| 3        | 216  | 3.6 | 197  | 3.3 | 19    | 0.3   |
| 4        | 175  | 2.9 | 167  | 2.8 | 8     | 0.1   |
| 5        | 151  | 2.5 | 159  | 2.6 | -8    | -0.1  |
| 6        | 142  | 2.4 | 149  | 2.5 | -7    | -0.1  |
| 7        | 160  | 2.7 | 148  | 2.5 | 12    | 0.2   |
| 8        | 146  | 2.4 | 153  | 2.5 | -8    | -0.1  |
| 9        | 143  | 2.4 | 139  | 2.3 | 4     | 0.1   |
| 10       | 151  | 2.5 | 153  | 2.5 | -2    | -0.02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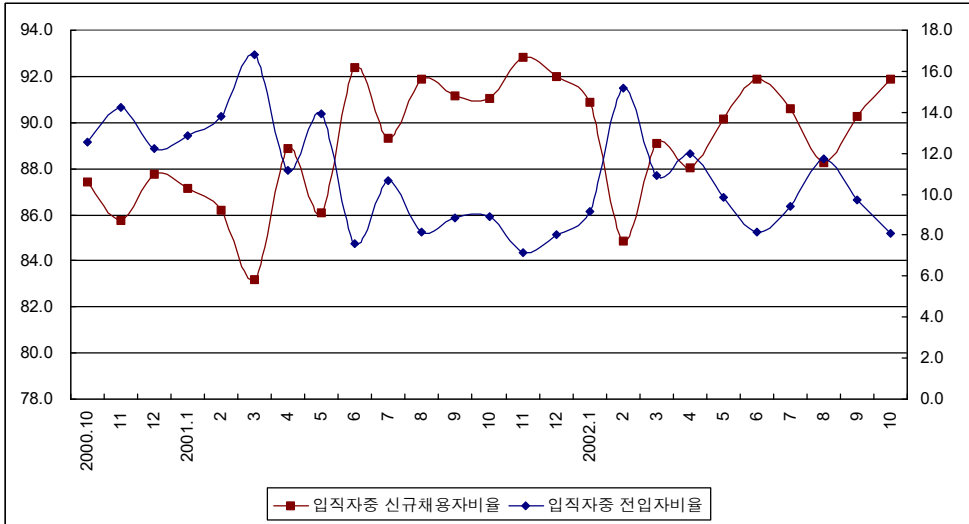
주: 입직률=(입직자수/당월말근로자수)×100, 이직률=(이직자수/당월말근로자수)×100,  
순입직자수=입직자수-이직자수, 증가율=입직률+이직률.

자료: 노동부, 『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』, 각호.

- 전월대비 신규채용자 비율은 상승, 전입자 비율은 하락
  - 2002년 10월 입직자 중 신규채용자 비율은 91.9%로 나타나 전월(90.3%)보다 1.6%포인트 상승하였으며, 전입자 비율은 8.1%로 전월(9.7%)보다 1.6%포인트 하락
  - 2002년 이후 입직자 중 신규채용자 비율은 약 90% 수준이며 전입자 비율은 약 10% 수준을 지속

[그림 7] 입직자 중 신규채용자 비율 및 전입자 비율 추이

(단위: 천명, %)



주: 1) 당월전입자수=당월 입직자수-당월 신규채용자수.

2) 전입자는 동일기업체 내에서 지점간 이동 등 다른 사업체로 이동한 자를 말함.

자료: 노동부, 『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』에서 재계산.

노 동 동 향

# 노사관계

이시균\*

## I. 임금교섭 및 노사분규 동향

### ◆ 2002년 협약임금인상률 6.7%를 기록

- 2002년 임금교섭 현황을 살펴보면, 협약임금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은 6.7%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6.0%에 비해 다소 상승(표 1 참조)
  - － 2002년 12월 31일 현재 임금교섭 타결업체 중 임금인상업체의 비중은 86.1%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80.7%보다 증가
  - － 반면 동결업체 및 하향 조정업체의 비중은 각각 13.7%와 0.2%로 전년 같은 기간의 18.8%, 0.5%보다 다소 감소
  - － 민간부분의 협약임금인상률은 6.8%, 공공부문은 5.3%를 기록하여 민간부분의 인상률이 공공부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 - － 2002년 임금교섭에서 협약임금 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은 5%대의 안정적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판단됨.
- 2002년 12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5,401개소 중 4,99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92.4%의 진도율을 기록(표 1 참조)
  - － 전년의 임금교섭 진도율 93.1%와 거의 비슷한 수준
  - － 민간부분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92.5%로 5,236개소 중 4,84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, 공공부문은 165개소 중 150개소가 타결되어 90.9%의 진도율을 기록

\*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(lsk@kli.re.kr).

<표 1> 주요 임금교섭 동향(2002년 12월 31일 현재)

(단위 : 개소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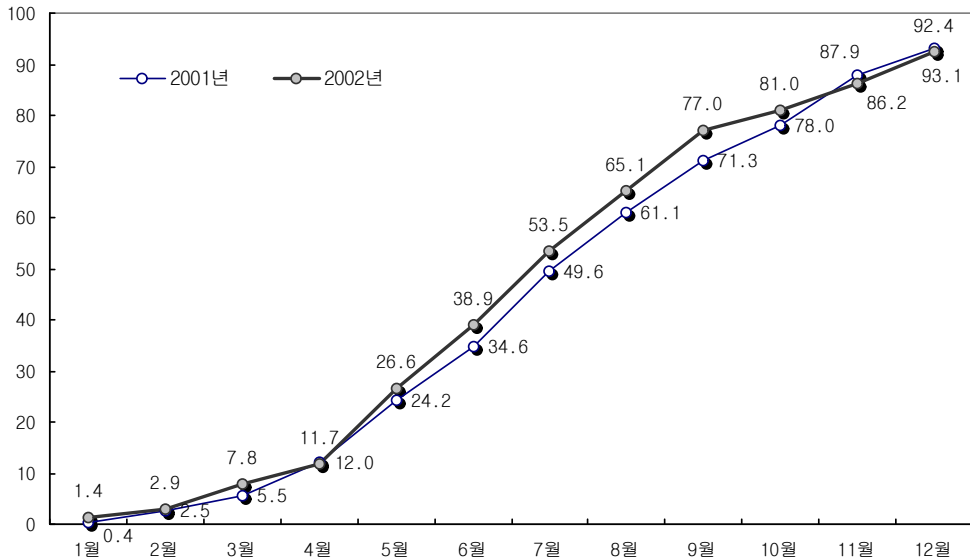
|      | 지도대상업체<br>(A) | 타결업체<br>(B)  | 임금교섭 진도율<br>(B/A) | 협약임금인상률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임금총액 기준  |
| 전 체  | 5,401(5,218)  | 4,991(4,857) | 92.4(93.1)        | 6.7(6.0) |
| 민간부문 | 5,236(5,053)  | 4,841(4,730) | 92.5(93.6)        | 6.6(6.1) |
| 공공부문 | 165(165)      | 150(127)     | 90.9(77.0)        | 5.3(5.0) |

주 : 1)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.

2) ( )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.

자료 : 노동부 임금정책과, 『임금교섭 타결현황』.

[그림 1]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추이(2001, 2002년)



◆ 노사분규 발생건수, 참가자수, 근로손실일수 크게 증가

○ 2002년 12월 31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, 발생건수·참가자수·근로손실일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임(표 2 참조).

－ 파업발생건수는 321건으로서 전년의 비해 36.6% 증가하였으며, 분규참가자수도 93.7천명을 기록하여 전년의 88.5천명에 비해 늘어남.

－ 근로손실일수는 1,579.7천명으로 전년의 1,083.4천명에 비해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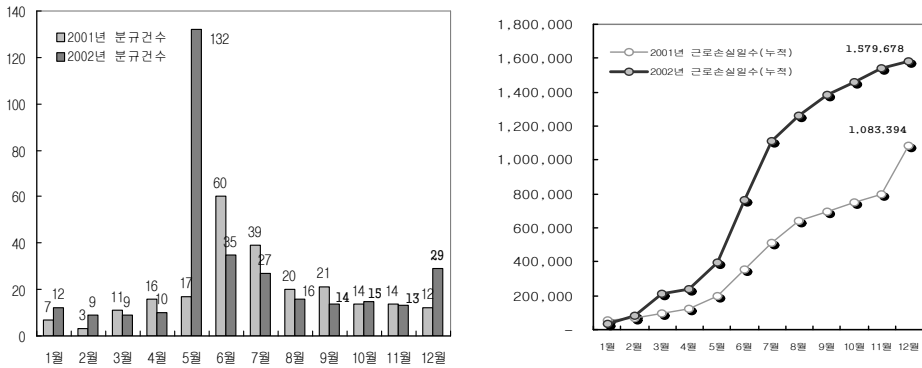
- 12월 중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는 29건으로 전년의 12건에 비해 크게 증가(그림 2 참조)

<표 2>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|            | (단위: 건, 천명, 천일)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2000. 12. 31    | 2001. 12. 31 | 2002. 12. 31 |
| 노사분규 발생건수  | 250             | 235          | 321          |
| 분규참가지수(천명) | 178.0           | 88.5         | 93.7         |
| 근로손실일수(천일) | 1,894.6         | 1,083.4      | 1,579.7      |

자료: 노동부.

[그림 2] 노사분규건수 및 누적 근로손실일수의 월별 추이(2001, 2002년)



## II. 노동정책 동향

### ◆ ‘사내근로복지기금법’ 2003년부터 시행

○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‘사내근로복지기금법’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함.

-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기업복지제도가 획일적인 복지항목 제공으로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한 것임.

- 기업복지제도의 비용 효율성과 근로자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선진 기업복지제도로써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‘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’를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50%에서 80%로 확대
- 또한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기금의 수익금이 감소하여 복지사업 수행에 곤란을 겪게 됨에 따라 안정적이면서 고수익 상품인 증권투자회사(뮤추얼펀드)와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금증식방법을 다양화
-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992년부터 시행된 기업복지의 근간인 ‘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’가 더욱 활성화됨과 동시에 선진형 기업복지제도인 ‘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’ 도입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복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  - 노동부는 ‘선택적 근로복지제도’로 인해 근로자 만족도 증가에 따른 기업이익 극대화, 근로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, 복리후생 비용의 효율적 운영 관리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

◆ 보험요율 대폭 인하 등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

- 노동부는 보험요율 인하,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.
  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임금의 1%를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로 납부했으나, 앞으로 0.9%를 납부하며,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보험료로 0.3%를 납부하던 것을 절반 수준인 0.15%를 납부하게 됨.
  - 한편 중장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한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는 1년 간 1인당 총 420만원이 지원
  - 50인 미만 중소기업장 소속 근로자가 퇴근 후 자비로 훈련을 받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를 지원
  -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

### Ⅲ.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#### ◆ 양대노총, ‘대통령직인수위’에 제도개선 과제 등의 노동계 요구를 전달

##### ○ 한국노총은 5대 핵심제도개선을 ‘대통령직인수위’에 촉구

- 한국노총은 ‘대통령직인수위’에 정책요구서를 전달하고, 노동분야 5대 핵심 제도 개선 과제로 근로시간단축, 비정규근로자 남용금지·차별철폐, 공무원·교수 노동기본권 보장, 동일가치·동일임금 원칙 법제화, 산별교섭구조 법제화를 제시
- 특히 최대 핵심쟁점인 ‘주40시간·주5일노동제’ 도입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
-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연간 근로시간 2,447시간을 2,000시간 이내로 축소하되, 기존 임금수준의 보전을 전제로 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, 사회적 약자 보호,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제시
-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철폐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간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제한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며, 파견법을 폐지하고 파견법상 근로자모집·공급사업의 기능을 현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일괄 통합하며, 기간제근로를 일시적 결원이나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 1년, 계절적 고용의 필요시 6개월로 제한하며, 기간제근로가 연장되거나 반복갱신된 경우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을 제시
- 또한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, 동일가치·동일노동의 법제화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촉구
-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최근 급속한 산별체제로 전환하고 있고, 노동자들의 요구가 근로시간단축, 비정규직 보호강화 등 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노동관계법의 정비를 통한 산업별 중앙교섭의 법제화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



- 한국노총은 제도개선 요구 이외에도 노사정위 위상강화, 경제자유구역법 폐지, 고용허가제 도입, 노동사회부로 격상,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요구
  -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는 위상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, 이를 위해 대통령과의 정례회의 및 보고 상설화, 인사·예산·운영상의 자율성 보장, 노사정위원회 조사권 및 출석요구권 강화, 합의이행 강제수단의 확보(노사정위원회의 이행권고 및 집행감독권 강화), 산업별(또는 업종별), 지역별 노사정위원회 설치 등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
  - 또한 한국노총은 4대 사회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각 사회보험별로 운영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, 사회보험의 각 공단은 가입자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문성·자율성·책임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
  - 그 외 한국노총은 경제특구법의 즉각적인 폐기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했으며, 노동부를 노동사회부로 개편하고,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할 것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편을 통해 4대 사회보험 등 근로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
- 민주노총은 ‘대통령직인수위’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10대 노동개혁 과제를 제시
  - 민주노총은 1월 16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‘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혁’, ‘근로기준법 개악 중단’과 ‘주5일 근무제 실시’, ‘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’ 등의 10대 노동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‘대통령직인수위’에 제안
  - 특히 민주노총은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국회통과 포기,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등과 더불어 두산중공업 분신사태 원인이 된 손해배상, 가압류 청구를 공기업부터 철회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
- 민주노총은 10대 과제를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산별연맹·지역본부는 물론 공무원·철도노조를 아우르는 ‘10대 노동개혁 쟁취 공동투쟁위원회’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
  -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에 수정 없이 처리될 경우 즉각 전면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
  - 주5일 근무제 쟁취, 비정규직 차별철폐, 산업안전보장 등의 사안은 임단투와 연계하여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

## ◆ 민주노총 금속노조, 두산중공업 분신사태 관련 연대파업투쟁 전개

- 민주노총 금속산업노조는 두산중공업 분신사태와 관련하여 1월 16일 전국적인 연대 파업투쟁을 전개
  - 민주노총 금속산업노조는 두산중공업에서 발생한 분신사태가 사용자측의 노동탄압의 결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연대파업투쟁을 전개
  - 금속산업노조는 경남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노동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, 손해배상 가압류 78억 및 해고 등 원상회복, 두산재벌의 한국중공업 인수 특혜 의혹 규명 특검제 도입 등을 촉구
  - 이와 함께 두산중공업노조도 파업에 돌입하였으며, 대규모 규탄집회를 진행
  - 민주노총은 두산중공업 분신사태와 관련해서 대규모 도심 집회, 두산제품 불매운동, 한국중공업 민영화 특혜의혹 규명 특검제 도입 촉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방침을 천명